

악보 같고 캔버스 같은 녹색 숲 길...사유의 숲 길

④ 북한산 '명상길' 그리고 심곡암(深谷菴)

우리나라 오악(五嶽)의 하나인 북한산은 서울을 품고 있는 산이다. 아니 서울이 안겨 있는 산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천 만이 낮과 밤을 허물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서울. 물기 없는 도시에 물을 대고, 인정 없는 도시에 숨을 대고 있었으니, 그것은 녹색의 '자연' 이고 서울의 '녹색' 은 북한산이다. 또한 그 수학적 같은 도시 지면에 음악책과 미술책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서울의 수원(水原)이자 기원(氣原)인 북한산에 둘레길이 들어섰다. 지난 2011년 6월에 총 21가지 테마를 가진 둘레길이 완성됐다. 그 중 '명상길' 이란 이름이 붙은 5구간을 걸었다.

5구간은 4구간인 '솔샘길' 이 끝나는 정릉주차장에서 형제봉까지의 길로 약 2.4km이고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주차장까지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북한산탐방안내소를 찾아가다. 뒤쪽 주차장에 '명상길' 이란 안내판이 있고 길이 시작된다. '둘레길' 이란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안내에 따라 걷기 쉽게 해 놓았다. 초반에는 가파른 길이 조금 있지만 계단이 놓여 있어 걷는데 불편하지 않다.

"이른 아침의 걷기는 하루를 위한 축복이다." 숲을 사랑했던 <월든>의 소로우가 말했다. 둘레길 곳곳엔 '명상길' 에 걸 맞는 금인들이 숨이 가빠올 때쯤 하나씩 나타난다. 바쁜 숨을 늦추고 잠시 마주하는 금인의 안내판은 악보 같고 캔버스 같다. 걷기 좋은 계절이다. 걸음은 걷는 대로 땀이 되고, 가벼워진 몸이 닫힌 가슴을 열기 시작한다. 넓어진 가슴이 걸을 속에 사유를 들인다. 걷는 즐거움이다. 진면목을 드러낸 녹색의 숲. 그 숲에서 들려오는 태고의 새소리. 숲과 숲 사이에 깃든 건강한 햇살.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산들바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하늘. 보일 듯 말 듯 한 한 줄짜리 거미줄에 걸려 걸음을 멈추려면, 길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멈춰 서서 앞서간 것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길 위에서 할 일이었다. 다시 길을 걷는다.

중생이 살고, 중생이 드나드는 길에 절이 없을 수 없다. '명상길' 주변에도 크고 작은 절들이 있었다. 우선 2km를 못 간 지점에서 쉼터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둘레길을 잠시 걸고 오르면 편으로 약 150m 정도 오르면 세 곳의 절을 만날 수 있다. 서광사, 영불사, 그리고 심곡암이다. 서광사는 가파른 계단을 많이 올라야 한다. 아담한 사찰이다. 서광사를 내려와 다시 둘레길에서 빠져 나와 권면 방향으로 계속 걸으면 영불사가 나오고, 그 왼편으로 심곡암 이정표가 있다. 영불사에서 대웅이 모여 재를 모시고 있었다. 심곡암 가는 길에는 등산로가 없다는



북한산 둘레길 5구간인 '명상길' 에 들어서면 진면목을 드러낸 녹색의 숲과 그 숲에서 들려오는 태고의 새소리 그리고 산들바람을 만날 수 있다.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텃밭에 물을 주고 있다.



이름처럼 드러나지 않게 깃들어 있는 심곡암



둘레길을 찾는 등산객이 '명상길' 을 걷고 있다.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절은 있는데 등산로는 이어지지 않으니 등산객은 알아서 하라는 뜻 같았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절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안내문이 없어 처음 와본 이는 길에 들어서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을 품고 걷는 길은 헛걸음에 대한, 보상 받지 못할 시간과 고단함을 먼저 생각하게 했다. 그때 멀리서 백구 한 마리가 짖었다. 절은 있겠다 싶어 계속 올라갔다. 가파른 길을 50m 쯤 올랐을 때 도량이 있음을 알았다. 도량에 들어서고 보니 너럭바위와 산사음악회로 유명한 심곡암이었다. 모란다는 것이 그토록 어두운 것인지를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백구가 더 크게 짖는다. 나가란 소린지, 어서 들어오란 소린지, 세상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더 많았다. "안녕하세요" 채소밭에 물을 주고 계시던 주지(원경·조계종 총회의원) 스님이 백구 소리 끝에 어정쩡하게 서있는 중생에게 합장을 하신다.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가슴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녹차가 단비처럼 흘러내려갔다. "그토록 유명한 심곡암이 이렇게 조용하게 숨어있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스님이 웃으셨다. "절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어서 많이 망설이며 길을 왔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절이 있음을 알리지 않는지 묻자 스님이 대답했

21가지 테마 둘레길 중 5구간 '명상길' 서광사, 영불사, 심곡암 등 세 절 있어 봄꽃·가을꽃 피면 심곡암 음악회 열어

다. "처사님처럼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곡암은 글자 그대로 심곡암이었다. "깃들고 싶은 사람만 깃들었으면 해요. 도량엔 그런 사람들만 오면 돼요." 스님은 산사음악회 공연이 있을 때도 특별히 안내문이나 이정표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작은 것은 작게, 큰 것은 크게." 스님은 15년 전에 주지로 와서 처음 한 일이 심곡암이었던 도량의 이름을 심곡암으로 고친 것이었다고 한다. 도량 크기에 비해 도량 이름이 너무 큰 것 같아 '사'를 '암'으로 바꿨다고 한다. 거꾸로 바꾸는 일은 많아요 드문 일이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지키겠다는 것 또한 흔치 않은 일이다. 너럭바위 옆에는 110년 된 참나무(보호수)가 한 그루 있다. "심곡암은 자연이 아름다운 절이에요. 꽃들이 혼자 피고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산사음악회를 해요. 돈 많이 안들이고 자연 무대(너럭바위) 위에서 음악회하면서 심곡암 보여주려고요." 스님은 전각불사보다는 문화불사를 통해 심곡암이 현실정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스님은 관념 속의 정도보다는 현실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곡암이 그 현실정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가을에 산사음악회도 합니다."

녹차 두 주전자를 비우고 나니 어느 새 날이 저물고 있었다.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조금 난감했다. 서둘러 자리를 일어섰다. '명상길' 구간은 아직 3분의1 쯤 남아있었다. 날이 저물어 갈 수 없을 것 같아 국민대길로 바로 내려왔다. 약 400m 길이다. 명상길 코스는 형제봉까지 가야하지만 힘든 사람은 기차처럼 심곡암에 들려 주지 스님께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국민대 앞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길이 꼭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걷고 싶은 만큼 걸으면 될 것이다. 북한산에 가을이 오고 가을꽃들이 피면 숲 길은 곳에서 음악이 들려올 것이다. 북한산 둘레길 '명상길'에는 꽃이 홀로 피고 지는 것을 아까워하는 스님과 그 때마다 음악소리 들려오는 작은 정토가 있었다.

글·사진·배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셋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다. 길은 전체 71.8km 중 서울시 구간과 우이령길을 포함하여 2010년 9월 7일 45.7km가 개통됐고, 2011년 6월 30일 나머지 26.1km 구간이 개통됐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걷는 둘레길은 물길, 흙길, 숲길과 마을길 산책로 등 각각의 21가지 테마로 조성됐다.

(5구간 '명상길')



옴마니반메흠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흠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흠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격: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인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폭도 안중고 불경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구를 풀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사할니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시금, 거문,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청탁점, 노래방, 우정, 모텔, 여관, 병원, 각종화원, PC방, 담배점,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불교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관광사, 인형점, 신발매점, 전자제품매점, 미용점,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